



RISTecBiz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출발을 합니다.

www.ristecbiz.com

안정된 기술력과 변함없는 품질로 신뢰받는 리스텍비즈는 SIMPAC그룹 계열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리스텍비즈가 영위하는 자원재활용사업은 SIMPAC그룹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계열사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SIMPAC그룹의 더 큰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본사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6길 46 TEL 061-792-8812
 광양공장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97 TEL 061-797-2000



SIMPAC STORY 2019 NEW YEAR VOL.45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도전

Challenge

SIMPAC
story

2019 NEW YEAR

VOL
45



SIMPAC story

SIMPAC STORY 2019년 NEW YEAR

통권 45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19년 4월 12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주)SIMPAC홀딩스 지영훈 사원 02-3780-4923 yhj@simpac.co.kr | 김유림 사원 032-590-2041 yurkim@simpac.co.kr

(주)SIMPAC프레스BU 김다희 사원 032-510-0040 daheekim@simpac.co.kr (주)SIMPAC인더스트리 신재희 사원 032-590-8813 jhshin@simpac.co.kr

(주)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kr | 이준기 과장 041-360-0122 jklee@simpac.co.kr

(주)리스팅비즈 현지만 과장 061-792-8812 jmhyeon@simpac.co.kr



FACT & STORY

04

2019년 신년사

최진식
SIMPAC그룹 회장

08

#01 INTRO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길

12

#02 INTERVIEW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16

#03 INFO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다



INSIDE SIMPAC

18

SIMPAC NEWS

SIMPAC그룹 소식

24

현장 인사이드

탄탄한 기술력과 뜨거운 애사심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다

30

SIMPAC 인사이드

SIMPAC R&D본부,
심팩 프레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다



LIFE & CULTURE

34

워라벨 큐레이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바꾼다

36

취미 프로젝트

산따라 물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40

보고싶다 동기야

42

SIMPAC_STARGRAM

올해의 목표

44

우리들의이야기

축하합니다



2019
新年辭

2019 NEW YEAR'S ADDRESS

친애하는 SIMPAC 그룹 임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은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하늘에 바치는 신성한 재물이자 재산과 복의 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재물과 행운이 찾아온다는 복된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우리 SIMPAC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제조업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SIMPAC 프레스사업부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와 전자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의 수요 위축으로 매출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메탈사업부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여 그룹 경영에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의 흐름이 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철강계에 대한 미국발 무역장벽의 여파와 전방 산업인 자동차, 조선, 건설의 부진, 원자재 가격의 급등, 중국산 철강재의 감산 완화와 공급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충격파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SIMPAC 인더스트리와 주물은 다소간의 수치개선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불황의 터널의 끝은 요원해 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나온 길 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험난하고 길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6% 이하로 하향조정이 예상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기들의 경제도 하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직면할 상황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느 해 보다 불투명하며, 불황 뒤 호황이라는 경기 싸이클도 기대할 수 없는 장기불황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어느 해 보다 더욱 절실하며 우리의 눈앞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회사가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열을 재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 강한 회사로 거듭 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께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적화(Optimization)입니다.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고객의 요구수준에 모자라지도 이를 초과하지도 않는 최적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 설계, 구매, 생산, 물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제품의 사양과 품질, 그리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2019 NEW YEAR'S ADDRESS

둘째, 기술과 제품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는 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제품개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사업부는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북미나 유럽의 선진시장에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조직과 개인의 역량 강화입니다.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人材)입니다. 아무리 많은 시장기회가 존재하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제품을 갖춘다 하여도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직원들이 없다면 회사의 미래도 없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하는 회사만이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인재의 소중함을 잘 알기에 회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에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역량과 팀웍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과 조직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프레스사업부의 해외영업 부문에서는 역대 최고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였고, R&D 부문에서는 독일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선진시장 개척을 위한 프리미엄라인 개발이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또한, SIMPAC INC와 METAL의 합병과 리스텍비즈(RISTecBiz)를 새로운 식구로 맞이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은 어느 해 보다 어려운 경기전망이 예상되지만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지혜롭게 헤쳐 나가 SIMPAC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한 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 이러한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매해 신년의 기대를 연말의 현실로 만들어 주신 모든 SIMPAC가족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
SIMPAC그룹 회장 최진식 드림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비상하는 한 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 이러한 한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FACT & STORY
INTRO
#01



2018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길

새로운 가치 창출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SIMPAC그룹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SIMPAC그룹은 개혁자 정신으로 항상 끊임없는 '도전'을 추구해 왔으며 과감하고 빠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뤘습니다.



FACT & STORY
INTRO
#01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길

우리만의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로서
고객의 최상의 파트너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크게 성장·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2019

FACT & STORY
INTERVIEW
#02



한 발자국 내딛는 행위

'한 발자국 내딛는 행위' 그 자체가 도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도전 과제가 있어도,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니까요.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강원상 대리



수만 가지의 인생길 중 하나

우리는 도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도전을 하지 않음으로써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죠. 결국 도전은 '수만 가지의 인생길 중 하나가 아닐까요? 물론 도전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지만 말이죠.

SIMPAC 프레스BU 해외영업팀 김학민 사원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상 모든 일이 도전을 수반하지만, 영업직만큼 매사가 도전인 직군도 많지 않을 것이다.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낯선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며 '도전 DNA'를 키워이 쌓아 왔기에, 도전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는 남다른 향기를 풍긴다. 그래서 궁금했다. 이들은 지금껏 어떤 도전을 해 왔으며, 도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사람들



일상

영업사원에게 있어 도전은 '일상'이에요. 아니,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매 순간이 도전이죠. 오늘과 내일이 같을 거라고 확실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도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김용완 대리



새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도전을 하는 걸까요? 저는 '새로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세상에서 벗어나, 한층 성장한 새로운 나와 그곳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을 알고 싶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도전에 임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기영업팀 정준수 사원

FACT & STORY INTERVIEW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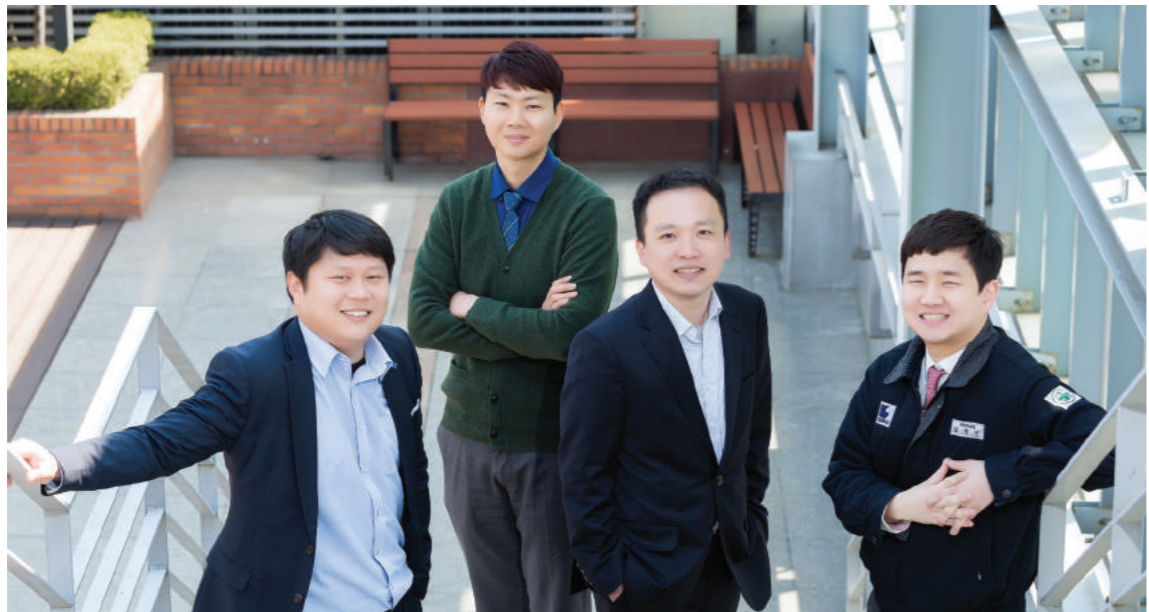
누구에게나 입사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SIMPAC그룹에 들어오셨나요?

강원상 대리_2011년에 입사했는데, 첫 직장이었기에 긴장감이 한층 컸던 걸로 기억해요. 영업팀에 들어 온 만큼 프로젝트 수주가 가장 큰 목표였지만, 이에 앞서 나만의 신규 거래처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하고 열심히 움직였죠. 처음 3~4년 동안은 여기에만 치중했는데 그 사이 200여 개 업체가 쌓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수주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나름대로 방향성을 잘 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김용완 대리_방송을 전공한 뒤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했었는데, 언제부터가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4년 SIMPAC인더스트리에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인 기계 지식이 없다 보니 가장 먼저 기초를 쌓았어요. 공대생이었던 동생 교재를 빌려서 공부하고, 귀찮을 정도로 선배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붙었고, 한결 커진 패기와 열정으로 영업에 임할 수 있었어요.

김학민 사원_저는 무역상사에 10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응을 잘하는 데 가장 신경 썼어요. 처음에는 터키 지역을 맡다가 멕시코를 담당했는데, 팀원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는 동유럽을 담당하고 있는데, 학창시절에 폴란드에 7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잘 살려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수 사원_저는 작년에 품질관리팀으로 입사했다가 영업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일본어 특기를 살려 요코하마 타이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일본 현지로 취업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이곳에서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제 언어적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영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팩의 가족으로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도전사도 여럿 있으실 것 같아요.

김학민 사원_사실 지금까지는 신입사원급이어서 현지 법인 직원 분들을 백업하는 업무를 많이 맡았는데요. 동유럽을 담당하게 되면서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그쪽 경험이 있고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심리적 접점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에 적극 힘쓰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의미 있는 도전사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준수 사원_얼마 전 품질관리 쪽에서 영업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렇기에 김학민 사원처럼 지금 이 순간과 상황이 입사 후 가장 중요한 도전인 것 같아요. 현재 일본 담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거래처가 사실상 요코하마 타이어밖에 없는 만큼 활동 범위가 좁은데요. 일본 내 신규 거래처를 잘 형성하는 게 당면 과제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김학민 사원과 상황이 비슷하네요. 강한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웃음)

김용완 대리_사실 해외 영업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 커요.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기가 국내에 비해 쉽지 않으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세계 굴지의 타이어 기업인 브리짓스톤에 저희 설비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고, 일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좋은 성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게 바로 영업의 맛이구나'를 순간순간 느끼고 있죠.

강원상 대리_경쟁사에게 뺏겼던 고객을 다시 찾아오는 순간도 참 짜릿해요. 작년에 10년간 경쟁사 쪽으로 갔던 업체를 저희 쪽으로 전환을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프로젝트도 큰 건이었거니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여운과 감동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전은 한편으로는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이를 어떻게 이겨 내시나요?

김용완 대리_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매 순간이 힘들기는 한데요. 그럴 때마다 나는 회사의 얼굴로서 여기에 와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요. 영업을 나의 일이라고 국한 짓지 않고 회사의 차원으로 확장시키면 압박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내 편이 뒤에 있다는 게 든든하기도 하고 마음의 짐도 한결 덜어지거든요. 이런 게 함께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아닐까요?

정준수 사원_일단 하고 나서 생각하지는 생각을 되뇌여요. 망설여지는 일도 일단 하고 나면 미래가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만약 그 외중에 실패하더라도 아예 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모르는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면 더욱더 좋고요.



강원상 대리_저도 정준수 사원의 생각에 동의해요. 일단 한 발자국 내딛어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깐요.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것부터가 도전이에요. 무사히 세상에 나왔다고 해도 먹는 것, 걷는 것, 우는 것, 말하는 것, 공부하는 것, 입사해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게 도전이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 왔기 때문에, 막연하게 도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학민 사원_도전하는 게 두려울 때는, 그 일을 안 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전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뭐가 더 옳은 방향인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껏 이런 고민을 하면서 느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도전할 때가 더 좋은 상황에 다다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나요?

강원상 대리_영업사원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목표량을 채우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와 더불어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인 만큼, 이제는 중간자적인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후배들을 잘 다독이고 이끌면서도 선후배 사이의 튼튼한 연결다리로서 팀의 분위기를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김용완 대리_현재 큰 프로젝트 하나를 추진하고 있어요. 한 해 목표치를 한 번에 채울 수 있을 만큼 큰 건인데요.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집중해서 반드시 프로젝트 수주를 이뤄낼 겁니다. 이후에는 신규 거래처를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새로운 한 해 목표를 정밀하게 세워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김학민 사원_이제 막 동유럽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난 만큼 이곳에 영업 밀비탕을 까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되 들떠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준수 사원_일본 내 SIMPAC인더스트리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요코하마 타이어를 제외하면 일본에 이렇다 할 거래처가 없는데요. 제가 새로 들어온 이상 한 곳만 담당한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먼저 제 언어적 능력을 십분 살려서 신규 거래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올해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FACT & STORY
INFO
#03

SIMPAC그룹,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SIMPAC그룹 2019년 업무계획

2019년 주요 수주계획(국내/해외)

16,800/7,700 백만 원

SIMPAC Foundry

2019년 목표

- ① 미주, 구미지역 3개사, 일본지역 2개사 신규업체 영업
- ② 국내 한국정밀기계, 화천기공에서 5개품목 이상 목형이관 영업

SIMPAC Press BU

해외영업팀

2019년 목표

- ① 18년도 이상의 해외 영업 수주 실적 달성 (720억)
- ② 체코 사무소 설립
- ③ 독일 법인 신규 개발프레스 MX2-1000 2대 수주

2019년 수주 실적 달성 목표

72,000 백만 원

국내영업팀

2019년 목표

- ① 해외 영업과의 협업을 통한 수주 창출 전략 실행
- ② 삼성전자 알제리, 폴란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창출
- ③ 해외 전기차 배터리 생산용 프레스 수주 창출

2019년 수주 실적 달성 목표

172,000 백만 원

SIMPAC Press BU

ROLL사업본부

2019년 주요 수주 및 매출 계획

12,000 백만 원

합금철본부

2019년 판매수량 목표

139,460 ton

2019년 판매금액 목표

187,219 백만 원

2019년 주요 수주계획(국내/해외)

16,000/4,000 백만 원

SIMPAC Industries

2019년 목표

- 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MIXER 수주 확대
- ② 중국시장 진출
- ③ LINE 수주 확대
- ④ 자동화 혼련 설비 수주 확대

RISTecBiz

2019년 영업전략

- ① 낮은 중금속 함량에 대한 습식 산화아연 장점과 원가상승에 대한 고객사 홍보 및 시장 인식 변화에 주력
- ② 습식산화아연 제품의 장점과 특성을 고려한 고객사 확보 주력 영업(사료, FRIT, 고무(M/B개발) 외 고객사 확대)
- ③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영업 활동으로 전환

2019년 RZ-950 제품 생산량 목표

5,300 ton

SIMPAC NEWS



SIMPAC NEWS

SIMPAC그룹

심팩최진식장학재단, 우수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실시

재단법인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2018년 12월 10일 SIMPAC홀딩스 대 회의실에서 2018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윤학섭 감사와 김도균 외 12명의 장학생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학금 수여식은 최진식 회장의 격려 인사, 장학생 발표 및 장학금 전달, 포토타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은 수여식에 참여한 인원을 포함하여 행정고시 및 입법고시 1차 이상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총 12명의 동국대 장학생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최진식 회장은 “2018년도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수여식을 마무리 하였다.

재단법인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이사장 윤연수)은 2008년 설립 이후 매 해마다 장학금 수여식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이윤 환원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8년도에는 동국대생 장학금 수여를 포함하여 총 93명의 장학생에게 170.1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함께 나누기 위해 심팩최진식장학재단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SIMPAC그룹, 2019년도 시무식으로 희망찬 새해 열어

SIMPAC그룹은 각 계열사는 지난 1월 2일과 3일에 2019년 시무식을 실시해 새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SIMPAC인더스트리와 주물 시무식은 회장님 주관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외 계열사는 각 사 사장님 주관으로 진행하였다. 최진식 회장은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지혜롭게 헤쳐 나가며, SIMPAC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각 시무식 현장에서는 회장 신년사 대독에 이어 장기근속자, 최우수/우수사원 포상 등에 대한 시상 등이 이뤄졌다. 이 외에도 각 사 임직원들은 간단한 다과를 즐기며 서로의 목표를 독려했으며, 희망찬 기해년을 기원하며 2019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SIMPAC그룹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참석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은 2019년 1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행사는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살자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회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초청된 대기업 대표 22명, 최진식 회장을 포함하여 업종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인 39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재계 순위 10위권 내에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도 총출동했다.

지난 1월 7일 진행했던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시나리오 없이 문 대통령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기업인의 건의사항에 관련 부처 장관이 직접 답변하고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다”라며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창출에 앞장서달라는 요청을 내놨다.



SIMPAC그룹 임직원, '제20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 참석

지난 3월 10~12일, 제20회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Asian Ferroalloys Conference)가 홍콩에서 열렸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합금철 컨퍼런스는 전 세계 합금철 업체 간 소통 및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에 심팩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금철 전문 기업으로서 매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전 세계 제강사·광석사·합금철 업체가 한자리에 참석한 이번 행사에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과 SIMPAC 메탈BU 송효석 사장 등 6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합금철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사흘간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행사 이틀째인 11일 오후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discussion에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이 메인 패널로 자리하여 향후 합금철시장의 전망과 최신 트렌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번 컨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SIMPAC NEWS

SIMPAC 프레스BU

SIMPAC 프레스BU, 기부활동 실시

SIMPAC 프레스BU는 2018년 연말을 맞아 기부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해 12월 11일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차준택 부평구청장에게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였다. 성금 전달식 이후 심웅섭 부사장과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2월 19일에는 해성보육원(인천광역시 남구 소재)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심웅섭 부사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내 불우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도 나눔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에도 SIMPAC 프레스BU는 사회공헌에 대한 전사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데에 도움이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SIMPAC 메탈BU

포항공장, 전 직원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SIMPAC 메탈BU 포항공장은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적십자 무료급식소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봉사활동은 적십자 봉사단과 포항철강관리공단, 그리고 SIMPAC 메탈BU 포항공장이 함께 하고 있으며, 벌써 5년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몸소 느낄 수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냐며 송효석 사장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직원들도 올해 역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마무리하였다. SIMPAC 메탈BU 포항공장은 이 외에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미니뷔페 행사 실시

지난 3월 28일,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구내식당에서 미니뷔페 행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행사는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중식과 석식 시간에 시행된다. 현재 당진공장은 조업 상황으로 3조 3교대를 실시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 치하를 위해 준비했다. 생산 지원팀 이준기 과장은 “몸과 마음이 든든해지고 더욱 힘을 내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과 해당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이날 실시된 미니뷔페 행사를 통해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준비된 식사를 기분 좋게 즐기고 담소를 나누며 안전하고 우수한 실적을 내는 사업장이 되자고 다짐했다.



함사세 봉사단, 100주년 대호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활동 실시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함사세’ 봉사단은 3월 30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 ‘100주년 대호지 천의장터 4.4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지원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서는 장진석 부장을 포함한 함사세 회원 10명이 참여했다. 함사세 봉사단은 당시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항일운동이자 당진지역 최대 만세운동이었던 4.4 독립만세 운동 참가자들의 위패를 단상에서 전부 내려 하나하나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이 닦았다. 또한, 위패가 모셔져 있던 단상도 깨끗이 청소하였으며 다 닦은 위패를 다시 원래대로 위치와 순서를 맞춰가며 올려드린 후, 창의사 내부 바닥과 주변까지 정리를 끝으로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함사세 봉사단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창의사에서 천의장터까지 걷기운동행사의 경로를 따라 꽃을 심고 환경미화를 하기 위해 모여주신 마을 주민분들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봉사로 소통하는 뜻깊은 하루가 됐다.



RIStecBiz meets

SIMPAC

**탄탄한 기술력과 뜨거운 애사심으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을 만들다**

친숙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익숙한 한국 속담도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여서 더 빛날 수 있는 곳.
SIMPAC그룹의 새 가족이 된 리스텍비즈를 찾아 더불어 일궈가는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김상기 팀장 | 리스텍비즈 ZnO 생산팀
김관빈 과장 | 리스텍비즈 ZnO 생산팀



#끈끈한 동료애

끈끈한 동료애로 젊은 열정으로 발전 이뤄내

조용하면서도 분주했다. 영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찰떡 호흡을 선보이는 곳, 리스텍비즈의 첫인상은 색달랐다. 전남 광양에 자리한 공장을 가득 채운 기계음 사이로 직원들의 움직임이 바지런했다. 파란 작업복 소매 끝에도 새하얀 안전모 가장자리에도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의 흔적이 내려앉았다. 그런 분주함에도 소란스럽거나 복잡하지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일에 집중했다.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빠른 모습이었다.

사실 리스텍비즈는 시작부터 특별했다. 이곳은 2008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용화 전문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원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제 1호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다. 철강산업의 부산물인 아연함유 분진을 정제해 고순도 산화아연을 생산하는 리사이클링사업과 제철소 고로에서 사용되는 내화물을 효과적으로 용해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내화물사업. 두 가지 대표사업을 통해 주목받는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왔다. 자원순화 우수기업과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 2018년 10월에는 산업 다방면으로의 진출과 기술력 극대화를 위해 심팩그룹의 일원이 됐다. 동종 리사이클링업계에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는 회사라, 그룹 차원의 관심 역시 지대하다.

“비영리재단법인인 세운 회사인 만큼, 그간 남다른 현장 분위기를 구축해왔습니다. 전 직원이 경직된 상하 관계 대신 형과 아우 같은 끈끈함으로 묶여 있다고 할까요?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곳의 방식이죠.” 3년여 전부터 리스텍비즈에 합류해 공장 총괄업무를 맡아온 김상기 팀장은, 대뜸 칭찬부터 쏟아냈다. 자신은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은 스마트 기기의 업무 활용을 공유하며 서로 배움을 나누는 관계라 덧붙였다.



9년을 꼬박 한 자리를 지켜온 김관빈 과장은 평균나이가 30대인 현장이 드물다며, 젊은 직원들이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위기에 부딪칠 때면 동료를 아끼는 마음과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성실히 헤쳐 나왔는데요. 젊음 특유의 힘으로 생산설비를 직접 마련한 건 물론이고요. 제품 생산이 안정화되기까지 뜬 눈으로 공장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손수 꾸려온 회사이기에 직원들의 애사심은 단연코 최고. 이곳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얼마든지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우리의 일터라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올 4월 초 포항 본사가 광양으로 이전 해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한층 활기차졌다.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한자리에서 이뤄지니 에너지와 비용 절감은 기본, 서로에 대한 피드백도 원활해지고 있다.

#새로운 활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 찾아 나서

우리나라의 동종 리사이클링업체 중 리스텍비즈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력 덕분이다. 이전에는 철강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전량 매립되는 폐기물 처리였다. 합금 또는 도금에 쓰이는 아연이 다량 함유돼 있음에도, 납 등의 유해물질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낭비되는 자원을 막고자 건식공정으로 유해물질을 분리해 산화아연을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하지만 더 쉽게 중금속을 제거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현재 리스텍비즈에서 사용 중인 습식공정이 그것이다. 습식공정은 중금속 제거수준이 높아, 피부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산화아연을 생산해낸다.

“초기에는 철강산업의 부산물에서 산화아연을 회수하는 사업이 상당한 경제성을 지녔었죠. 폐기물을 저렴하게 사들여 수익을 창출했으니까요. 문제는 폐기물과 약품 등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매출이 흔들렸고 이른 시일 안에 다른 활로를 찾아야 했는데요. 우리는 산화아연이 주로 쓰이던 사료, 세라믹, 고무산업 등을 뛰어넘는 고부가가치 화장품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산화아연이 필수적인 선크림에 안전성이 확보된 우리의 산화아연이 쓰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리스텍비즈다



김상기 팀장 |

외면받던 폐기물에서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리스텍비즈는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김관빈 과장 |

회사가 무엇을 해줄지 기다리기보다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는 직원들.
그들이 지금의 리스텍비즈를 만들었습니다.

66

변화를 두려워 않고 함께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는 김상기 팀장과 김관빈 과장의
각오는 리스텍비즈 전체의 각오이기도 하다.
더불어 가면 우리는 분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99



#심팩의 가족

심팩의 가족으로 30년 후를 함께 준비해가는

변화에는 얼마간의 혼란이 뒤따른다. 이제 리스텍비즈가 심팩의 일원이 된 지 6개월. 현장에서 느끼는 격정과 기대는 제각각이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애사심 강한 직원들이 발전된 근무환경에서 신나게 일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의 불편함을 덜고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4억 원 가량이 투자된 자동설비를 건조하고 있다.

“사실 비영리재단법인 소속에서 사기업 지붕 안으로 들어서는 일도, 낯선 시스템에 맞추는 일도 모두 두려운데요. 회사를 아끼기에 조금씩 심팩 마인드를 장착해가고 있습니다. 수동설비를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 지난 시간도 좋지만요, 심팩 덕분에 효율적인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돼 작업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김관빈 과장의 솔직한 이야기에 김상기 팀장은 심팩그룹 운영진과 이곳 직원들이 자주 소통하기를 바란다 했다. 그래야 심팩인이라는 소속감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며,

30년의 역사를 성실히 쌓아온 리스텍비즈는 또 다른 30년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제품 스펙을 어디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할지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노 제품으로 열 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화장품산업으로의 확대 진출에 이어 타이어 분야에도 뛰어들 생각이다. 변화를 두려워 않고 함께 탄탄대로를 만들겠다는 김상기 팀장과 김관빈 과장의 각오는 리스텍비즈 전체의 각오이기도 하다. 더불어 가면 우리는 분명 목표에도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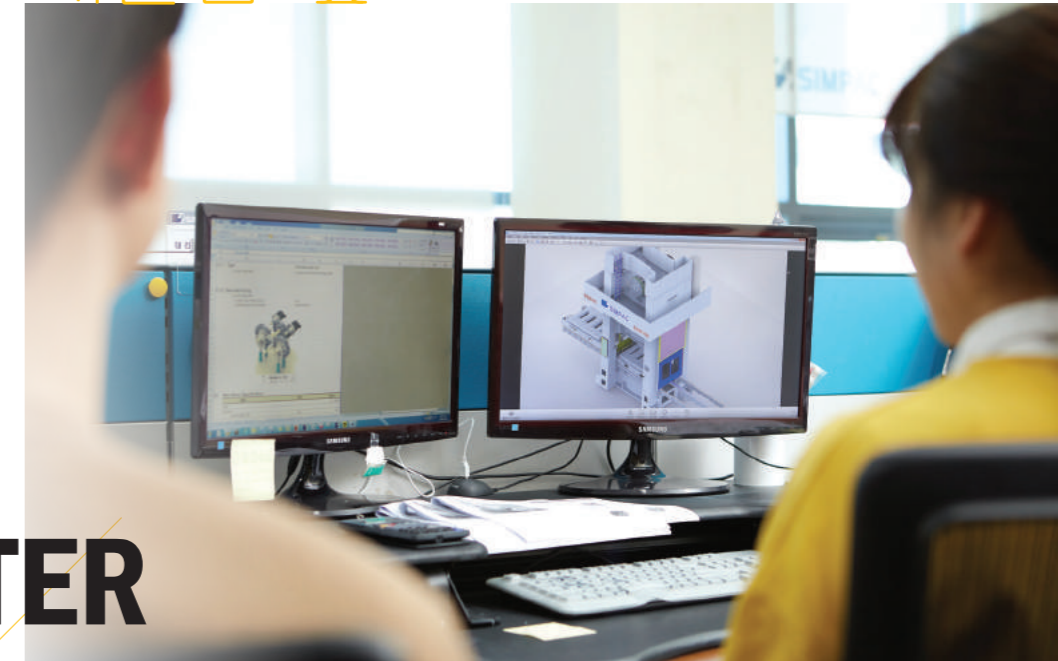
개발팀 정종섭 부장
전기설계팀 박세영 대리
자동화팀 유경민 대리
기술지원팀 김명호 대리
기계설계팀 공상우 사원

SIMPAC R&D본부, 심팩 프레스의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

최신 프레스 트렌드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프레스를 연구 개발하는 R&D본부는 개발팀·기계설계팀·전기설계팀·자동화팀·기술지원팀 총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협업하며 연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심팩 프레스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이들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 업무 풍경을 한층 자세히 들여다보자.

개발팀

R&D CENTER



특별한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다

과거와 달리 고객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꼭 맞는 맞춤형 프레스를 요구함에 따라, 특별한 사양의 프레스를 개별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개발팀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프레스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서보프레스도 개발팀에서 설계한다.

이렇듯 표준화된 사양을 벗어나는 프레스를 설계해야 하기에, 개발팀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는 '해석'이다. 쉽게 말해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몇 년 전까지는 계산과 수치로 프레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프레스가 제작됐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간혹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활용해 가상의 프레스를 모델링(Modelling)하고 이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한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프레스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게 개발팀의 설명이다.

최근 서보프레스가 업계의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개발팀은 프레스 구동부를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이를 넘어서는 프레스를 만들어 내겠다는 개발팀의 의지가 빛나는 대목이다.

기계설계팀



꼼꼼하게 마련하는 '생산 밑바탕'

개발팀이 특별한 사양의 프레스를 설계한다면, 기계설계팀은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사양의 프레스를 설계한다. 또한 프레스가 차질없이 생산될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유관 부서에 두루 배포한다. 기본적으로는 설계 도면과 프레스에 들어가는 볼트 하나까지 모두 기재돼 있는 BOM(Bill Of Material)을 만들고, 실제 프레스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적 문제를 생산팀과의 긴밀한 협업하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프레스 기술 검사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 품질지원팀과 공유하는 업무도 맡는다.

프레스 설계 시 가장 신경 쓰는 점은 '표준화'와 '작업성'이다. 설계는 설계자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개인의 성향과 경험치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설계도면이 나오는 것. 기계설계팀은 이를 팀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있다. 또한 설계 시 부품 생산 파트나 조립 파트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노력들이 곧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됨은 물론이다.



프레스에 생명을 수혈하다

전기설계팀은 전기와 관련된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프레스 시장이 '맞춤형'으로 향하다 보니, 이들이 다루는 프레스 구동 프로그램도 각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시중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에 그만큼 이를 익히고 프로그래밍하는 데 품이 많이 들지만, '프레스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자부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전기설계팀의 업무는 사무실 밖에서도 계속된다. 팀원들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생산된 프레스가 현지의 실정에 맞게 설치·구동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에 파견된 팀원이 시운전을 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하면 한국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시차가 정반대일 경우 꼼짝없이 밤을 새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고되기도 하지만, 심팩 프레스의 온점을 찍는 일기기에 매사 최선을 다한다.

중요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기설계팀도 최근 업무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력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방책을 찾아 표준으로 삼는다. 전기설계팀은 오늘도 이렇게 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전기설계팀



자동화팀

'SIMPAC Family'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다

자동화팀은 유압 파트와 자동화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유압 파트는 유압 프레스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자동화 파트는 프레스와 관련된 자동화 기기를 업무 아이템으로 삼는다. 두 파트 모두 각 아이템과 관련된 견적 사양 검토, 제작 관리 PM(Project Managing), A/S 대응이 주 업무다. 가장 눈길이 가는 업무 영역은 제작 관리 PM이다. 프레스는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완성되기 힘들다. 프레스 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의 손발이 맞아야 비로소 완성도 높은 프레스가 탄생한다. 고객으로부터 유압 프레스 및 자동화 기기를 수주받으면, 자동화팀은 설계에 들어가는 동시에 협력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기기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각 협력업체 부품에 대해 설계 검토를 하는 한편 납기에 맞춰 부품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사전 검수를 실시하고, 고객사의 입회 검수도 돕는다. 최근에는 프레스만 단독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자동화 기기를 포함한 라인 전체를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주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자동화팀의 활약상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 문의에 대한 '든든한 지원사격'

기술지원팀은 프레스의 영업 및 생산에 대한 효율적 기술적 대응을 위해 탄생한 팀이다. 영업팀이 긴급 견적을 신청하면 빠르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넘기고, A/S팀을 통해 들어온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 대응한다. 따라서 기술지원팀의 핵심 역량은 '신속·정확한 기술적 검토와 피드백'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기계설계팀의 설계 업무도 일부 병행한다.

프레스의 사양이 다양화·개별화됨에 따라 기술 검토 시에도 두루 어려움이 따른다. 평소 접하지 못한 사양에 대한 기술 문의가 들어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이 힘을 합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지원팀은 팀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아가 팀워크는 팀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중시켜야 하는 기술 표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기술지원팀은 평소 팀원들 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술지원팀의 올해 방향성도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 기술 표준화를 통해 설계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표준을 하루 빨리 정립해 기술적 대응이 한층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 기술지원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술지원팀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을 바꾼다



즐겁게 일하며 행복한 삶 꾸리기

프랑스로 이민을 간 어느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성실하게 일을 했죠. 한국에서 하던 대로 야근도 불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인 상사가 불려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다지요.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직장문화를 망칠 셈인가, 우리에게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 하는 삶이 무척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형 구직 사이트인 '커리어 빌더'에서 미국 직장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천여 명의 직장인 중에서 단 34명 만이 리더(부장급)의 역할을 원했고, 단 7명 만이 고위 임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업무나 직급이 워낙 만족스럽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52%였고, 다음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34%였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열심히 다닙니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은 기본이요,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이유는 그만큼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고, 성취감을 느끼고자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바로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Curation



일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직장인들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힘들다고 투덜대곤 합니다. 오죽하면 월요일마다 월요일병에 걸리겠어요.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하루만 월차를 내도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취업이 안되어 일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죠. 일하지 않는 그들은 매일 출근 시간대의 교통량과 시도 때도 없는 야근을 일삼는 직장인보다 더 행복할까요?



억지로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까?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직장인들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직장인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대출금이라도 갚아야 해서, 아이의 학원비라도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후 느끼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사라지는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겠어요.



꿈의 직장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까?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돕는 꿈의 직장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구글을 꼽습니다. 개개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공짜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죠. 회사에서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로운 만큼 실적의 압박이 심해서 1년도 안되어 그만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글의 평균 근속 연수는 3.2년에 불과하죠.



일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야 할 때

우리가 '워라밸'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저녁이 있는 삶이 회사의 일만큼 중요한 것처럼,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삶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근무시간이나 사내제도보다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을 많이 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정이나 내 삶에 충실하다고 해서 일에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일과 삶을 분리해서 각각의 만족도를 따로따로 높이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며, 성취감과 자부심이 커집니다. 일의 만족도가 높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과 삶이 진정한 조화를 이룬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산따라 물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리스텍비즈 사내 동호회 '산따라 물따라'를 만나다



2019년 SIMPAC STORY에서 '취미 프로젝트'는 SIMPAC그룹 임직원들이 함께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신설되었다. 원데이 클래스 체험부터 사내 동호회 활동까지 다양한 소재로 직장 생활에서 즐거움을 더하고 있는 심팩인들의 시간을 함께해보고자 한다. 취미 프로젝트 제 1탄에서는 사계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즐기는 리스텍비즈 사내 동호회 '산따라 물따라' 이야기를 담았다.



hiking

fishing

광양 백운산
남해 금산
구례 오산

순천 조계산
순천 용산
남해 둘레길

여수 화태도 낚시
여수 금오도 둘레길

건강과 재미를 한 번에 갖고 싶다면 산따라 물따라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와 피로를 토로한다. 때문에 저마다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하며 심신을 관리하고 싶어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리스텍비즈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돕는 제도를 구축해 건전한 취미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2015년도 사내 최초로 창단된 동호회가 '산따라 물따라'이다. 현재 회장 겸 총무인 최흥연 과장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사우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쯤 되니 '산따라 물따라'의 의미가 궁금하다. 최흥연 과장의 말에 따르면 나름의 공모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다양한 동호회명이 나왔지만, 말 그대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기자'는 모토와 가장 어울리는 '산따라 물따라'가 채택됐다. 동호회명처럼 산따라 물따라는 국내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며 산행과 낚시를 즐긴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활동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산행 대신에 스키나 보드 등 겨울 스포츠를 즐긴다. 덕분에 회원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고, 공백기가 줄어드는 만큼 더욱 활성화된 동호회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동호회의 자랑은 이뿐만 아니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면서 친목을 쌓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

소통 업! 활력 업!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들

산따라는 물따라는 회원들간의 유대관계가 좋아 사내에서도 유명하다. 동호회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서로 뜻이 잘 맞는 사우들이 모여 모두가 즐기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생산팀 김관빈 과장은 다시 한 번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지금은 퇴사한 사우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전날 과음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끝까지 조계산 산행을 했던 사우가 생각납니다. 당시에는 회원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챙겨주던 회원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들에게 산따라 물따라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됨이 틀림없다.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땀 흘리며 더욱 동료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사내 동호회의 매력이다.

끝으로 최흥연 과장은 산따라 물따라가 회사 내 다양한 부서 사이에서 서로의 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했다. "리스텍비즈는 많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생겼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저희 같은 동호회가 활성화되면 그런 역할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우들의 직장 생활에 활력도 불어넣어주는 산따라 물따라가 오랫동안 지속되길 바라본다.



MINI INTERVIEW

환경안전팀 김영철 과장

'산따라 물따라'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사를 떠나 잠시나마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많은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생산팀 김관빈 과장

아무래도 회사 동료들과 움직이다 보니 주로 근거리 위주였는데요.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멀리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산따라 물따라' 회원분들도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웃음).



'산따라 물따라' 동호회 최흥연 회장이 추천하는 맛집!

장어명가는 작년 6월 구례 오산 산행을 갔을 때 갔던 장어 숯불구이 식당이다.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로 시작해 아는 사람들만 오는 맛집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입소문을 타 구례 대표 장어맛집이라 불리는 곳이다. 메뉴는 오로지 민물장어 숯불구이와 은어튀김 뿐이지만 맛은 일품이다.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릴 한 접의 보약보다 효능이 좋다고나 할까?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수요일 휴무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용방로 31

전화번호 061-783-9292

입사 1,2년 차 동기 단톡방



보고싶다 동기야

사랑하는 동기들아, 올해는 더욱 성장한 심팩인이 되자!



Log in

많은 심팩인들이 매해를 거듭할수록 동기들과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곤 한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바로 '보고싶다 동기야'. 동기들과 직접적인 만남 또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로 '입사 1,2년차 동기'들의 우정 이야기를 들어본다.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팀 인사총무PART 김다희 사원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지? 입사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 지 모르겠다. 처음 입사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교육 들을 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내가 매일 교육장에 과자랑 음료수 사다 놓고 교육 듣다가 업무하러 가곤 했었지 ㅎㅎ 또, 포항/당진공장에 1박 2일로 계열사 투어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금방 친해진 것 같아. 그 이후에 각자 부서 배치받고 업무에 적응하다 보니 점점 만나는 횟수도 줄고 같은 회사인데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네... 가끔 지나가다 얼굴 보는데 힘들어 보일 때 내심 걱정도 됐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회사에서 업무 외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 같은 동기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다들 1년 새 적응도 빨리하고 업무도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2018년 처음 입사했을 때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해보면 아직 팀 막내로서 작은 일만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분명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해서 또 1년 뒤에 발전한 모습이 되어있길 바라며~ 조만간 동기모임 가자아~!



Send

입사 1,2년 차 동기 단톡방



SIMPAC 프레스BU 전기설계팀 윤원미 사원

우리 동기들 예쁘고 잘생겼다!(다들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녕 우리 동기들! 나 원미야 ㅎㅎ 다희도 그랬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라서 어색하다^^;; 우리가 2018년 4월 23일에 처음 만났는데, 어느새 1년을 코앞에 두고 있네! 처음 교육장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다들 어색해서 쭈뼛쭈뼛했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하다 ㅎㅎ 한 3일 정도는 아무 말도 없이 교육만 듣다가 쉬는 시간에 조금씩 떠들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진 것 같아. 혹시 그거 기억나? 교육하러 들어오셨던 분들 중 한 분이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1년 뒤까지 아무도 안 나간다면 원하는 거 다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약속 꼭 지키시라고 저희 아무도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참 재미있었는데 그치~?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했는데 지금은 서로 업무에 바빠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얼굴 보기도 어려워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커ㅠㅠ 회사에서 가장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동기라고 하잖아..! 기쁜 일은 물론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축하해주고 슬퍼해주면서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자! 우리 동기들 앞으로 더 파이팅♥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설비팀 이호선 사원

다들 잘 지내는 거 같아서 다행이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아~ 업무적으로나 인부 차 연락하는 것 외에는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다! 지금은 연락으로만 근황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동기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동기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인만큼 업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더불어 참 사회인으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 SIMPAC이라는 최고의 환경에서 현장직원들과 소통하고 팀 내에서 업무와 기술력을 마음껏 토론하며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말겠어! 매 순간마다의 선택의 합이 앞으로의 미래를 만드는 만큼 매 순간 후회 없는 선택으로 올 한 해도 심팩인으로서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김민지 사원

선배님들의 동기사랑은 역시 뜨겁네요!! 2019년 입사 동기들아~ 우리도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ㅎㅎ 우리들이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또 선배님들의 열정과 책임감을 옆에서 함께 느끼면서 입사를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의 내가 함께 하지 못했으면 어쩔뻔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ㅎㅎ 그에 비해 나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헤매고 있을 때도 있지만,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2019년도 SIMPAC인더스트리의 첫 입사자로서 올해의 목표를 세워봤는데, 먼저 회사에 적응하는 것과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더 나아가 생산팀의 업무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거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할거야! 내가 보낸 사진은 우리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다른 동기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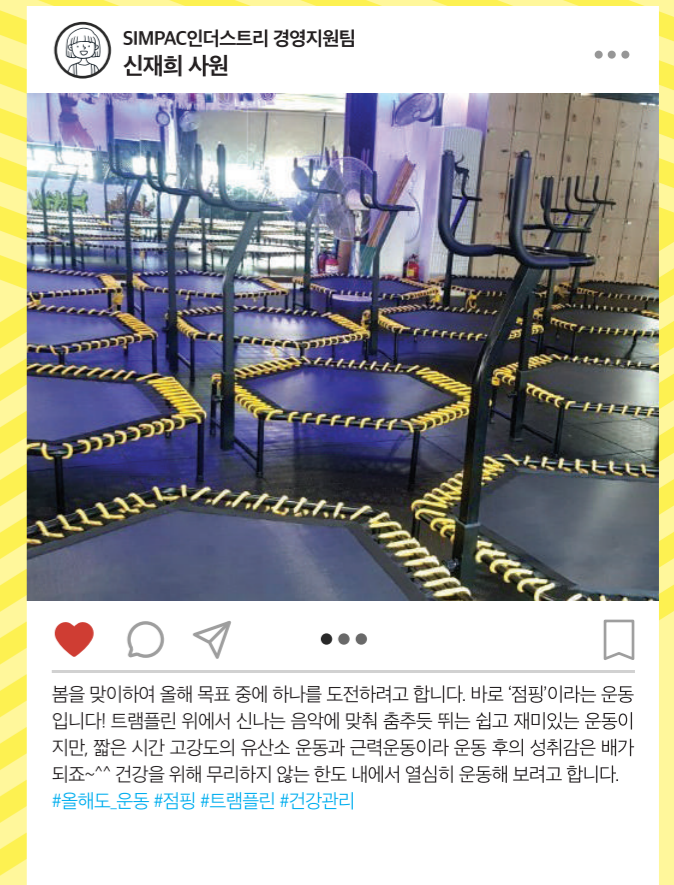
Send

SIMPAC STARGRAM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올해의 목표'를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올해의 목표

이 코너는 사우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CONGRATULATIONS!

탄생을 축하합니다 Welcome Baby

2019.1.15

SIMPAC 프레스BU 경영지원1팀 경영지원PART 현창우 과장 & SIMPAC인더스트리 경영지원팀 민혜림 사원 부부 딸 현하린 양



사랑하는 우리 하린이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또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 언제나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린이가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어. 하린이 사랑해♥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1st Birthday

2019.2.16

SIMPAC 프레스BU 전기제어PART 이경덕 선임 아들 이태강 군



우리 태강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강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래 사랑해♥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p>SIMPAC 홀딩스</p> <p>SIMPAC그룹 지주회사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p>	 <p>SIMPAC 프레스BU</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 · 기계식, 유압식, 서보프레스 생산</p>	 <p>SIMPAC 메탈BU</p> <p>국내 Top-tire 합금철 메이커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p>	 <p>SIMPAC 인더스트리</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p>	 <p>SIMPAC 주물</p> <p>국내 대표 주조 메이커 · 주조주물 생산</p>	 <p>리스텍비즈</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p>
--	--	---	--	---	--